

「북한학계의 고조선과 낙랑과 관련된 최근 연구동향」을 읽고

오영찬(이화여자대학교)

1990년대 이후 남북한의 역사 인식에서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주제 중 하나가 오늘 발표자가 다루고 있는 고조선과 ‘낙랑군’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북한 학계의 현 상황은 평양 강동군 대박산 소재의 소위 ‘단군릉’을 역사적 인물 단군의 무덤으로 인식하고 단군신화의 단군조선을 역사적 실체로 인정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단군조선은 대동강문화론으로까지 확장된다. 발표자는 북한 학계가 당면한 문제의 근원을 정확하게 인식한 위에서 1990년대 이후 북한 학계의 조사와 연구동향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서북한 일대의 토성과 화분형태기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발표자의 지적과 비판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다만 몇 가지 보충 질문을 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책임을 면하고자 한다.

발표자는 서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고조선 평양설에 입각한 북한학계의 조사와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고조선 평양설의 입장에 설 경우, 고조선이 멸망된 후 설치된 낙랑군의 위치도 역시 평양에서 찾아야 한다. 이럴 경우 낙랑군의 평양 존재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북한 학계에서는 민족의 성지인 평양이 외세에 의해 짓밟힌 치욕의 역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한 군현 낙랑군의 평양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대신 평양 일대에는 고조선 만주설의 입장 때와 마찬가지로 고조선의 후국 또는 낙랑국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발표자도 제목에 ‘낙랑군’이 아닌 ‘낙랑’을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북한 학계의 낙랑군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문제점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소위 ‘단군릉’ 문제가 제기된 이후 고조선 및 낙랑군을 둘러싼 조사와 연구 동향을 다루면서 이전 시기와 비교해 늘 획기적인 변화가 강조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학설 상의 변화와 아울러 유지 내지 지속되는 견해도 확인된다. 자료의 편년이나 해석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료의 편년만 일방적으로 상향한 채 해석은 바꾸지 않은 경우도 있고, 자료의 편년은 그대로 둔 채 해석만 바꾼 경우 등이 확인된다. 연구 동향의 전체 맥락 속에서 개개 경우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요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대동강문명론과 고조선을 둘러싼 남북 간 역사 해석 및 고고학 편년과 해석의 차이는 소위 '단군릉'을 단군의 무덤으로 적극 인정하는데서 비롯되었다. 이는 1993년 당시 북한 최고 지도자의 교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교시는 얼마 되지 않아 유훈이 되었다. '단군릉'의 해석에 대한 번복 없이는 자료의 편년과 해석의 극명한 차이를 좁히기 어려워 보인다. 향후 남북의 학술교류가 활성화되는 국면에서 공동의 논의를 모을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이 필요해 보인다.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